

# 전주역 명품복합환승센터 단계적 추진

### 시, 2025년까지 옛 농심부지에 243억원 투입 조성사업 1단계 복합환승장 건립

전주시가 전주역 인근에 대규모 주차공간과 시내·고속버스 환승장, 편의시설 등을 갖춘 복합환승장을 짓기로 했다.

전주시는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인 전주역 명품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의 1단계로 오는 2025년까지 전주역 인근 옛 농심부지에 총 243억원을 투입해 복합환승장을 건립할 계획이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전주역 복합환승장 건립사업과

연계해 전라북도가 실시한 공영주차장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했으며, 내년 부터 오는 2025년까지 도비 45억 원 등 총 90억 원을 투입해 94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비 지원이 확정되면서 복합환승장 조성을 위한 총사업비가 당초 계획된 153억 원에서 243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시는 전주역 혁신관광소설플랫폼인

복합환승장을 지하 1층~지상 6층, 연면적 5000㎡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시내버스 63회/1일, 서울·인천·대전 등으로 가는 고속버스가 42회/1일 운행될 예정이다. 또 전주역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회의실, 통합관광안내소 등 관광기초시설 등도 갖출 예정이다.

시는 막대한 사업비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대형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민선8기 공약사업인 ‘전주

역 명품복합환승센터’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향후 부지선정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민선8기 임기 내에 명품복합환승센터 조성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신속되는 전주역 주변에 시외·고속버스와 시내버스, 택시 등 주요 교통인프라와 복합문화공간의 기능을 집결시켜 전주와 전북의 교통허브로 키워나갈 계획”이라며 “1단계 복합환승장 조성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2단계 전주역 명품복합환승센터 건립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이지콜 차량 휴일 대여서비스 도입

### 전주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위해 차량 확대 운영 등 추진

전주시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지콜 차량 휴일 대여 서비스를 도입하고 특별교통수단을 꾸준히 확충키로 했다.

시는 이동수단이 없어 주말 및 휴일에 여행 등이 어려운 교통약자 가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행하지 않는 휴일 차량을 대여하는 서비스를 계획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서 1일 대여료(30,000원) 및 주유비, 통행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또 전주시는 올해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1대를 증차한 56대, 셔틀버스 4대, 임차택시 20대, 총 8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

의 증진법에 따라 법정 의무대수는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수(9,099명) 150명당 1대인 61대이다.

이에 시는 법정 의무대수 확보 및 이동권 확대를 위해 내년에 5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추가 구입하고, 이후 오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5대의 콜택시를 증차하는 등 장애인 콜택시를 66대까지 늘릴 계획이며 임차 택시도 35대까지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강준 대중교통본부장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량 확대 운영 및 서비스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덕진소방서, 화재 발생 전년 대비 27.5% 감소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올해 10월까지 총 121건의 화재가 발생해 지난해(2021년) 10월까지 발생 화재 167건 대비 46건(27.5%) 감소했다고 전했다.

국가화재정보센터 화재통계에 따르면, 전주덕진소방서 관내 10월까지 총 121건의 화재가 발생해 지난해 10월까지 발생한 화재 167건보다 27.5%(46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21건 화재피해로 총 14억 8981만 4,000원의 손실이 났으며, 인명피해(사망, 부상)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발생 장소별로는 공동주택(15건)과 단독주택(17건) 등 주택화재가 32건(26.4%)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 화재 18건(14.8%), 쓰레기 화재 등 야외의 화재가 18건(14.8%) 음식점 화재 12건(9.9%)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원인으로 살펴보면 ‘부주의가 54건’으로 전체 화재의 44.6%를 차지해 가장 큰 원인으로 확인됐으며, 그 외 전기적 요인(40건), 기계적 요인(10건) 등이 주요 발생원인으로 집계됐다.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화재 발생은 감소하고 있지만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아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화재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는 전주한옥마을 내 옛 전주공예명인관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한옥마을도서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시의원, 도서관운영위원회, 전주한옥마을비밀공동체, 인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8일 가졌다.

## 전주 여행자 위한 ‘한옥마을도서관’ 개관

### ‘나를 돌아보고 채워가는 삶의 여행’ 테마 총 2162권 장서 비치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찾는 여행객들에게 힐링과 힘을 제공할 세 번째 여행자도서관이 전주한옥마을에 문을 열었다.

전주시는 전주한옥마을 내 옛 전주공예명인관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한옥마을도서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시의원, 도서관운영위원회, 전주한옥마을비밀공동체, 인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8일 가졌다.

한옥마을도서관은 연면적 108.54㎡에 △삶을 돌아보고 찾아가는 ‘마음여행’

길인 마음공간(열람공간) △나의 마음에 채우는 ‘꿈여행’ 길인 품방앗간(채움공간) △일상을 풍요롭게 가꾸는 ‘소통여행’ 길인 대나무숲(체험공간)의 3개 동으로 구성돼 있다.

이곳에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채워가는 삶의 여행’을 테마로 총 2162권의 장서가 비치됐다.

따라서 한옥마을도서관은 △인간관계에 관한 도서 ‘나로인해, 너로인해’ △나에 관한 철학을 담은 도서 ‘어제 내가, 오늘내게’ △삶을 풍요롭게 채우

는 도서 ‘슬기로운, 00생활’ 등으로 북큐레이션했다. 또 특별 코너로 △나를 찾는 길 △전주의 길 △한옥의 길을 주제로 한 도서들도 만날 수 있다.

한옥마을도서관은 매주 화요일~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되며, 인근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이다.

김병수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한옥마을도서관을 통해 전주의 멋과 가치를 알리고, 여행지에서도 책을 통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더 안전해진다

### 전주시, 연말까지 11개 구간 보행환경개선공사 추진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을 ‘안전한 통학로’로 전주시가 바꾸고 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전주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11개 구간에 통학로를 개설하고, 어린이 교통시설을 개선하는 등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보행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 대상 지역은 ‘서문·진북·미산·전라·금평·인후·인봉·동북·풍남·효자·삼천남’ 등 11개 초등학교로, 시는 해당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길가장자리구역 확보 △교통안전시설물(교통표지판 등) 신설 △횡단보도 재도색 △미끄럼방지

포장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2020년부터 관할 경찰서와 함께 지역 내 75개 초등학교의 통학로 설치 여부를 합동 점검한 결과 통학로가 없는 24개소중 8개소는 통학로 개설을 마쳤고, 11개소는 진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5개소는 2023년도에 설치할 계획이다. 또 열로카펫 23개고, LED바닥신호등 9개고, 노란신호등 6개소에 대하여도 설치를 완료했다.

시는 23년까지 71억여원을 확보해 보호구역 내 노후신호기 30개소 정비, 11개소 신설 예정이며, 총2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중점 범위를 전수조사해 지역실정 및 현행법에 맞게 적합한 개선안을 수립하고 정비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 김은경 전북지방환경청장, 옥정호 녹조상황 현장 점검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임실군 옥정호와 정읍 산성정수장을 방문해 녹조발생에 따른 현장 상황을 8일 점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김은경 청장은 임실군 관계자들과 옥정호 주변 개발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은 녹조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옥정호 내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수자원공사 산성정수장 관계자에게는 “옥정호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읍·김제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질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 2008년부터



조류경보제(녹조 독소 기준)를 운영하고 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현재 옥정호수에 대해 철저한 수질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옥정호 조류경보는 발생되지 않았다. /김영태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